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 . .

에스겔 37장 1-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입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창세기 3장 9절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종종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why?’라는 질문은 대개 인간들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던졌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인간들은 인생의 순조롭게 풀려가는 순간이나 축복을 누리는 때에는 ‘why?’라고 묻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질문이 생길 때 비로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고난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동행할 뿐 아니라,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조선 회상]이라는 닥터 셔우드 홀이 지은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 사람인 셔우드 홀은 18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결핵 퇴치에 헌신할 것을 결심합니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메리안 버텀리와 결혼하여 1926년 감리교 의료선교사로 해주 구세병원에 부임해 1927년 최초의 근대적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1932년에는 많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크리스마스실을 발행합니다.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결핵환자 치료와 모범적인 영농 기술을 보급하는 교육 사업을 벌였습니다. 한국에서 추방된 그는 인도로 건너가 1963년 의료선교사

로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도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1991년 4월 5일 9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이 한국에 돌아와 대한민국 결핵협회장으로 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원 제1묘역에 안장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가족사에 있었던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확인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홀은 조선 땅에 부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부모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둘은 각자 선교사로 들어와 한국에서 결혼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외국인에게 금지 구역이었던 평양에서 처음으로 의료와 선교를 시작했던 분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했던 평양의 조선 사람들을 돌보다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만의 결혼생활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임스 홀’입니다. 당시 부인 로제타 홀은 어린 아들 셔우드 홀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임신 중이었던 딸 에디스를 낳아야 했습니다.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고,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이 가정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로제타 홀 여사는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이 사역하던 교회를 방문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가족을 맞아 주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그러나 도착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딸 에디스를 풍토병을 잃습니다. 그 때 딸을 남편 옆에 묻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제타 홀은 박점동 이라는 한국 여자 분을 유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의사를 만들었으며, 지금 서울 동대문 옆 이화여대부속병원이 로제타가 세운 병원이며, 서울에 경성여자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병원이 지금의 고려 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에 간호대학과 인천의 기독병원이 모두 로제타가 세운 병원입니다.

43년간의 한국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미국은 그의 사역을 인정하였고, 로제타 선교사는 미국이 뽑은 200 대 여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8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면서, 양화진 땅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곳에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고난으로 인해 인생이 피폐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묻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찾

아온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때 고난은 이 사람에게 '사명'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순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물으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궁금해서 인생들에게 물으실까요?

잠깐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순간은 인간들이 느끼는 답답함이나 억울한 감정에 대한 호소 같은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물음 속에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내밀한 의도, 혹은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묻고 계시는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교육의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는 질문을 통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계속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질문의 연속은 우리에게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존 맥스웰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에서 "질문은 꼭 닫힌 문을 여는 알리바바의 주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컨설턴트로서 나의 가장 큰 강점은 이는 척 하지 않고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공하는 리더들은 하나같이 집요하게 질문을 함으로써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인다.

그 대표적인 질문을 우리는 욥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이 인생에 이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에게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날 일이 발생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재난이야말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람들을 대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선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가 정의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인해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순간에 잃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저주를 듣는 상황이 되었으니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을 잘 아는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그에게 충고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죠. **욥기 4장 7-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밟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한 순간에 부정하는 말입니다. ‘역울함’이야말로 지금의 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역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삶을 항변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답답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은, 이 질문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는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과 친구들이 욥기 4장부터 23장까지 벌였던 논쟁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인간들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에게 폭풍처럼 70여개나 되는 물음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와 규모를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모았느냐?

흰 눈을 쌓아 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누가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내는지 아느냐?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지 아느냐?

산 염소와 암사슴은 어떻게 출산하는지 아느냐?

이러한 우주의 질서와 창조 다스림에 대한 일들은 인간이 생각해보지도 생각 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가만히 이 질문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인생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욥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고 깊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자신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습

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불만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라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이 원하는 것만큼 구체적으로 고난의 이유들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니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려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욕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욕기 42장 5-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마도 우리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다니던 초등학교를 찾아갔을 때, 그렇게 크게 보이던 나무와 건물들이 이렇게 작았음에 놀랍니다. 어릴 적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했던 기억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지면서 죄송하고 고맙고 했던 일들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문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일들은 '영적 여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놀랍죠, 의문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일들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서 고백했던 것이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항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영적 성장으로 이끄십니다.

존 맥스웰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에서 질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질문이 중요한 7가지 이유'를 정리해 놓았는데, 특히 리더는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적절한 질문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질문을 던져야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질문 들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지셨던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간 지 이미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오랜 포로생활로 지쳤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이스

라엘 백성과 에스겔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뼈들, 그런데 그 뼈들이 달 말라 버렸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사고와 이해 속에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 때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 에스겔은 생각하고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이 대답을 보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배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활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냐’는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희망!

이것은 그들에게 의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한 말이 정답입니다.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희망과 능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른 뼈’는 절망입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없는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흠어진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이 마른 뼈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흠어진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느니 의미입니다. 이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는,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물으실 때, 그 물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설 때,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묻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아니 인간들을 향해 최초로 물으셨던 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이 있다. 창세기 3장 9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에덴동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꾀에 빠져버린 인간들의 영적 상태를 묻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관계가 깨어져 버린 아담에게는 이 물음이 무척 무섭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음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순간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숨고 있는 그의 영적 상태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디 있니?”라고 물으신다면,

이 물음 역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서 죄의 특성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대상으로 부터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국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죠. 죄는 나를 태어나게 한 조국에서 살 수 없는 인생

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기를 친사람, 늘 그 사람의 얼굴을 피해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

부모와 친지에게 몹쓸 짓을 한사람, 가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은 안식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죄를 짓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숨는 인생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있느냐?'는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에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성장'은 우리 삶의 '교정'과 함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너 계속 이리로 갈 거야?”라고 물으시는 경우 말입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답은 그 길을 멈추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니?”라고 물으신다면, 그 물음 역시 딴 짓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물음은 사도바울을 부르실 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는 사울을 만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사울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나아가고 있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개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질문이 '부르심'으로. . .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거니?”

그 질문 앞에 서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으셨던 이 물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교회에 던지시는 것으로 적용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질문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촉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우리의 문제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이 아닐까요?

저에게도 참 심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어떤 신문사의 국장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현재 한국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으셔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참 무기력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괜히 잘못 말을 했다가 “그래 너 잘났다!”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지 않을까?

혹시라도 말꼬리를 물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는 않을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명’보다 ‘치려야 하는 대가’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물을 보고 무기력하게 물속으로 빠져갈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참 신기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가니 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 볼 때와, 그 시선을 세상을 향할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우리를 부르시던 때의 열정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부르심’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 부르심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등병 때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이것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등병은 식스센스를 능가하는 세븐센스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고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는 센스다. 고참이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이불을 만지작거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야 한다.

고참이 “아, 오늘은 밥 먹기 귀찮은데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면

“제가 끓이겠습니다!” 하고 끓여 와야 한다. 근무 교대할 때 무거운 짐을 고참이 들고 내 무반에 들어오면 “제가 들겠습니다!” 하고 대신 들어야 한다.

이등병 때는 모든 일이 내 일이었다. 일을 골라서 하기 보다는 찾아서 해야지 욕을 먹지 않고 에이스로 등극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도 병장이 되었다. 그때 나는 태어나서 누렸던 호사 중에 가장 훌륭한 호사를 누렸다. 여기저기서 이등병들이 보혜사처럼 나를 떠

나지 않고 항상 따라다녔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침구가 정리되어 있었다.

“어, 뭐야, 나 조금 더 자려고 했는데. . .”라고 했더니

“다시 깔겠습니다!” 하고 삼시간에 다시 잠자리가 세팅이 되었다. 나는 근무를 설 때 늘 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갔다. 다 읽지도 않으면서 사회에 있을 때 공부를 잘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무 교대를 할 때면 한 50m 앞에서부터 후임이 달려 나와 “제가 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아니야, 내가 들게”라고 하면 세븐 센스가 없는 후임들은 “네 알겠습니다.”하고 물러섰고, 그 후 그들은 내 뒤에 상병쯤 되는 후임들에게

“야, 한 번만 물어보지 말고 적어도 두 번은 물어보라고!” 라며 세븐센스 교육을 받았다.

제대하기 전 마지막 근무가 끝났을 때 내무반에 들어와 양팔을 모세처럼 들면 아론과 훌 이등병이 달려와서 내 근무복을 벗겨 주었고, 나를 그대로 들어다가 내 자리까지 옮겨 주었다. (나는 쓰레기 고참이 아니었고 군대에서도 내 별명은 ‘김 목사님’ 이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제일 편한 때였다는 생각이 든다. 늘 “제가 하겠습니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짐을 대신 지어 주려는 이등병들이 주변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만,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모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등병의 마음을 소유한다.

하나님은 그런 이등병의 마음을 가진 신자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신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이등병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하지만 처음에 받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안 놀라워지기 시작하면 이등병의 마음이 아닌 병장의 마음이 된다.

병장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골병이 든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등병의 마음으로 낮아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갑질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교회 안에서는 영적 갑질이 심각하다.

영적 갑질은 무엇인가?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니깐, 내가 너보다 하나님이란 많이 친하니깐,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아니까, 내가 너보다 섬김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깐, 고로 너는 조용히 이어야 해. 어디서 병장 신자가 말하는데 이등병 신자가 나대?”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갑질 아닌가?

교회는 군대가 아니다. 교회에서의 최고 자량은 연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율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영 갑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아직 숙이지 못함은 익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로 갑질 할 때가 아니라 갑질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